

“독립, 민족의 자존심”... 옥중서도 당당했던 기개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⑨ 만해와 서대문 형무소 ④

문: 피고는 앞으로도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언제라도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왜경에 체포된 뒤 경찰과 검사, 만해 스님 사이에서 이뤄진 심문의 마지막 내용이다. “할 일을 했다”는 당당한 기개가 넘치고 있다.

일제로부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님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당당히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다.

이제 항일 상징된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여러모로 가슴 아픈 민족사의 굴곡을 가지고 있다. 1907년 시텐노가즈마(四天王數馬)의 설계로 착공, 다음해 ‘경성감옥(京城監獄)’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후 80년 동안 약 35만 명을 수감, 슬한 민족의 수난사를 인태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 4·19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기업인·세도가·군장성·재야인사·운동권 학생 등과 이 밖에 살인·강도 등의 흉악범과 대형 경제사범·간첩 등 다양한 범법자들이 이곳을 거처했다.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6년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등의 명칭을 거쳐 1967년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고,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이후 1998년 사적(史蹟) 제324호로 지정되었다.

이제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아픈 민족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해 스님은 3년여의 이곳 수감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고문을 받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수감된 민족대표들의 생활상은 대략 이렇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 6시 기상해 오후 9시 취침했고, 식사는 콩과 보리로 만든 주먹밥 한 덩어리와 소금국이 전부였다.

시설도 열악했다. 시멘트 바닥에서 더운 여름과 차디찬 겨울을 보냈다. 이 같은 열악한 시설과 악형으로 몇몇 대표는 생을 등지기도 했다.

실제 박준승은 고문으로 옥사했으며, 손병희는 옥중에서 생긴 병환으로 출감 후 숨졌다.

고초를 겪을수록 당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민족대표들을 둘러하고 투쟁의 의지를 바로 세웠던 것은 바로 만해 스님이다. 스님의 3년 간 옥고는 故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평가대로 옥중 생활이라기보다는 투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고, 옥중 활동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실제 만해 스님은 민족 대표들에게 옥중 투쟁의 3가지 원칙을 제안·주장했다. 첫째는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는 사식(私食)을 취하지 말 것, 셋째는 보석(保釋)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이다.

독립선언 발표 직후 왜경에 체포

서대문형무소 수감... 2년여 獄苦

‘변호사·사식·보석 금지’ 옥중 투쟁

‘할 일 했다’ 日 재판장서도 당당

옥중서 한시 13수, 시조 1수 써내

애국·일제 저항·성찰 등 내용 담아

수감 생활, 지속 항일투쟁 원동력

옥중 투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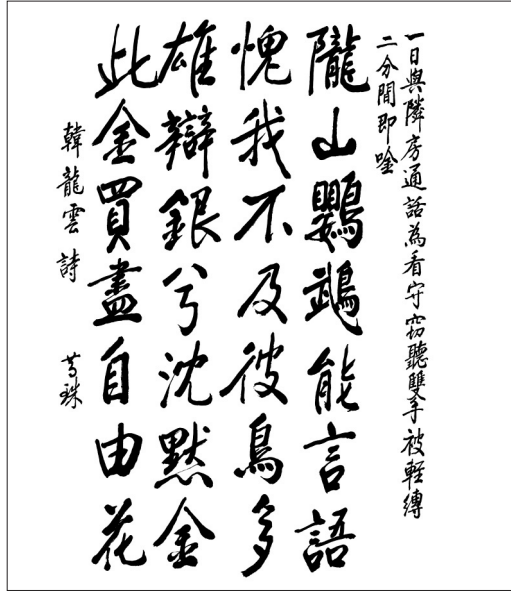
내가 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기에 변론을 할 이유가 없고, 호의호식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만해 스님은 주장했다. 또한 일제 법률에 따라 보석 신청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다.

일일 검사의 심문과 이어진 재판에서도 만해 스님은 조선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의 간섭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다”, “우리들의 행동은 너희들의 치안 유지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죄가 성립될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대문형무소 본청사 전경. 지금은 교육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1907년 설계돼 이듬해 완공된 서대문형무소는 수많은 항일 인사들이 고초를 겪거나 생을 마감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민주화 인사들을 수감했던 곳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 ‘獄中吟’. 독립의 열망이 느껴진다. 생전에 만해 스님을 흠모한 석주 스님의 글씨.

한 것뿐이다”라고 독립의 정당성을 갈파하곤 했다.

일제가 민족대표 일부를 내란죄로 몰아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에도 만해 스님은 당당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인사는 감옥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자 만해 스님은 “비겁한 인간들이 울기는 왜 우냐! 나라 잃고 죽는 것이 무엇이 슬프냐! 이것이 소위 ‘독립선언서’에서 명했다. 민족대표의 모습이다”고 호통을 쳤다.

이 같은 일화는 천도교 측 민족대표 이종일의 <목암 비망록>에도 소개된 이야기로

| 氏名 | 年 齡 | 年 月 日 生 | 指 紋 番 號 |
|-------|-----|---------|---------|
| 韓 龍 雲 | 身長 | 尺 寸 分 | |
| | 特 徵 | | |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수감 카드. 스님은 3년 동안의 수감 기간동안 옥중 투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당당하게 일제와 맞섰다.

이종일은 당시 스님의 호통을 “통쾌무비한 일”이라며 “역시 한용운은 과격하고 선사다운 품목이 잘 나타나는 젊은이”라고 회고했다.

여타의 민족 대표들과는 전혀 다른 당당함과 기개를 보여줬다는 것인 상좌 이준성 스님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절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가지고 면회하면 ‘이것은 뭐하러 가져왔느냐. 내가 아홉 귀신 먹다 남은 것을 먹을 줄 알았느냐’고 내던지기 일쑤였다. 감옥의 간수들도 ‘저 중이 제일 간 큰 놈이지. 저 놈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어’라고 저희들끼리 중얼거렸다.”

옥중 시조, ‘철장 문학’의 진수
만해 스님의 높은 기개는 스님의 지은 한시와 시조에서도 나타난다. 스님은 수감 기간동안 13편의 한시와 시조 1수를 지었다. 소위 ‘철장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옥중에서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이 만들어진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를 남겼고, 세르반테스는 왕실 감옥에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창작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만주류순 감옥에서 <조선상고문화사>를 저술하다 옥사했다.

평소 깨달을 추구한 수행자이면서 유교

와 서양철학·문학에도 이문이 밝았던 스님이 옥중 생활동안 창작활동을 이어갔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만해 스님은 한시와 시조를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다.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곧잘 하는데

隴山鸚鵡能言語
그새보다 훨씬 못한 이 몸이 부끄럽다.
愧我不及彼鳥多
웅변은 은이요 침묵이 금이라면
雄辯銀與沈默金
그금으로 자유의 꽃 모두 사라라
此金買盡自由花

‘옥중에서 읊다(獄中吟)’라는 제하의 한시는 옆방 동료와 이야기하다 간수에게 들켜 2분간 손이 묶이게 된 이후 읊은 즉흥시다.

이 한시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여기서 스님은 말 잘하는 앵무새, 웅변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회유 간섭을 거부하는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는 저항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저항의식은 독립을 갈망하는 의지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같은 대담한 정신과 행적에서 만해 스님의 옥중 독립운동은 살아날 수 있었다”면서 “서대문형무소의 항일 투쟁은 출옥 이후 지속적인 항일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교수는 “자유를 갈망했던 만해 스님이 이 시에서는 자유의 꽃을 사기 위해서는 침묵이라는 금을 모두 다 팔아버리겠다고 항변했다. 그의 옥중 시에는 자유와 독립의 두 개념이 일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문학자인 김중균은 자신의 논문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에서 옥중 시의 핵심은 ‘자유 의지’에 있다고 봤다.

그는 논문에서 “만해 스님의 옥중 시(시조)에서 가장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음성은 자유다. 이 자유의 문제는 만해 스님의 ‘남’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면서 “남의 존재는 다위가 되어주고 한없는 그리움은 신앙을 날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정치인 학자로서의 논리, 시인으로서의 섬세한 정서가 모두 하나로 응결돼 옥중 시에 나타난다”면서 “만해 스님의 옥중 시는 독립이란 개념이 철두철미하게 은유돼 표현된 시”라고 설명했다.

1921년 가을, 출소한 만해 스님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옥중의 고통 속에서 쾌락을 얻었고, 지옥 속에 극락을 구하였다”고, 고통의 칼날을 가까이 수용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갔다. 철장마저 수형처로 알던 만해 스님의 담대함과 당당한 기개도 우리 후학들이 본받을 귀감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범석 世界佛敎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혹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